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소식



인사말



존경하는 대한 부인종양·콜포스코피 학회 회원여러분!

최근 의료계는 정당한 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요구하며 잘 못된 의약분업의 재개정을 촉구하는 힘든 투쟁을 수개월간 지속하여 왔으나 기대에 어긋나는 결과를 보면서 허탈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더구나 어려운 경제 사정과 혼탁한 사회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며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회원님들께 뜨거운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특히 이번 제8차 IGCS가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개최되었는데 여러 회원님들께서 많은 논문을 발표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심으로써 첨단 지식의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은 디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제9차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나라로서 당연한 자세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특히 목적은 국제학회 조직위원장 이 주관한 Korean night에 참석한 외국석학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년 전 회장직을 맡으면서 2가지 점을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암 통계가 국제적 통계자료에서 누락되고 있다는 점과 둘째 미국에서 GOG(Gynecologic Oncologic Group)가 범 국가적인 협동 연구를 시행함으로써 짧은 시간 내 많은 의미 있는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풀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 저는 기획위원회 산하에 소식지소위원회와 정보소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지상 및 Website상으로 기본 틀을 갖추고 저 하였습니다.

파업의 장기화로 본 학회에서는 11월 8일 시행하려고 계획하였던 제15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부득이 연기하고 12월 10일 규모를 축소하여 젊은 석학 외국 연자 세분을 모시고 심포지엄 형태로 한양대학교 백남 학술정보관에서 난소암 발생 경위 및 치료에 대한 최신 지견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학회의 책임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회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저는 이번 추계 학회로써 제가 맡은 임기 2년을 마치고 차기 회장에게 인계하게 되겠습니다. 지난동안 선배님들이 이루어 놓으신 업적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여러 가지로 염려스러운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의 위상을 무너뜨리지 않게 더욱 노력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회원님들이 보내 주신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11월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 학회 회장 문 형 배상

CONTENTS₂₀₀₀ 11

제3호

2 **학술**
제15차 학술대회 및 2000년 정기총회 개최

3 **학회동향**
'2002 서울국제부인암 학회 조직위원회

4 **각 회 탐방기**
제8차 IGCS 학회

6 **교신탐방**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 교실

7 2000년 춘계 학술대회 결과보고

8 **회원동정**

발행인: 문 형

편집인: 이 규 완

발행처: 한길기획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한양대학병원

산부인과학교실

TEL: 02-2299-9237

FAX: 02-2296-8472

제15차 학술대회 및 2000년 정기총회 개최

New Perspectives on Ovarian Cancer for 3rd Millennium

일시 12월 8일(금) 13:00-18:00 장소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국제 세미나실(6층)

본 학회에서는 의약분업에 의한 의료계의 어려운 상황으로 부득히 정상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다음과 같이 심포지엄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일시 : 2000년 12월 8일(금) 13:00-18:00

■ 장소 :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국제 세미나실(6층)

■ 학회일정

New Perspectives on Ovarian Cancer for 3rd Millennium

13:00-13:30 등록
13:30-13:40 개회

New Concepts in the Treatment of Ovarian Cancer

Keiichi Fujiwara MD., Ph.D
(Kawasaki Medical College)

(좌장 : 김승조, 김재욱)
13:40-14:10

1. Intraperitoneal chemotherapy and peritoneal washing cytology in management of epithelial ovarian cancer.

14:10-14:20 Discussion
14:20-14:50

2. Effective way of using taxol in carboplatin-based combination chemotherapy.

14:50-15:00 Discussion
15:00-15:20 Coffee Break

학회지 투고규정 변경 안내

학회지 투고규정이 변경되어 2000년 9월호부터는 신규 투고규정에 의하여 접수를 받고 있으며 학회에서 선정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엄선된 논문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신규 투고 규정은 학회지 2000년 3월호에 실려있습니다.

New Concepts in Carcinogenesis of Ovarian Cancer

Ikuo Konishi MD., Ph.D.
(Shinshu University)

(좌장 : 박찬규, 문형)
15:20-15:50

3. Gonadotropin and development of ovarian cancer

15:50-16:00 Discussion
16:00-16:30

4. Angiogenic factors in ovarian cancer

16:30-16:40 Discussion

Special lecture

(좌장 : 문형)
16:40-17:10

5. Different forms of hCG present in Pregnancy and Trophoblastic Disease
Laurence Cole MD(University of New Mexico Health Sciences Center)

17:10-17:20 Discussion
17:20- 폐회 및 Reception

등록비

전문의(사전: 30,000원, 당일: 40,000원)
전공의(사전: 20,000원, 당일: 30,000원)

전화 신청 : 02-2299-9237

사전등록 마감: 12월 2일(토)

국내에서 가장 경제적인 rhG-CSF로 환자의 순응도가 매우 높습니다.

GRASIN[®]





특 장 점

1. Grasin[®]은 FDA가 승인한 유일한 rhG-CSF입니다.
2. Grasin[®]은 고용량 화학요법 및 조혈모세포이식 시에도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었습니다.
3. Grasin[®]은 부작용이 가장 적은 안전한 제제입니다.



* 문의처: 본사이케팅실 그라신담당P.M. TEL: 549-7451 ~ 65


호중구증식 특급
그라신[®] 주
 filgrastim(rhG-CSF) 75·150·300

제조판매원

제일약품

원료공급원

KIRIN

2002 서울국제부인암학회 조직위원회

	학술위원회	기획위원회	재정위원회	출판위원회	홍보·전시위원회	행사위원회
위원장	남궁성은 (가톨릭의대)	강순범 (서울의대)	남주현 (울산의대)	김경태 (한양의대)	이규완 (고려의대)	황운영 (한양의대)
공동위원장	이제호 (성균관의대)	조영래 (경북의대)	차순도 (계명의대)	서호석 (고려의대)	박상윤 (원자력병원)	남상윤 (충남의대)
위원 1	김병기 (원자력병원) 김재욱 (연세의대) 남주현 (울산의대) 박종섭 (가톨릭의대) 서호석 (고려의대) 송용상 (서울의대) 유희석 (아주의대)	김승철 (이화의대) 김재원 (서울의대) 남계현 (순천향의대) 박일수 (경북의대) 박창수 (성균관의대) 이용우 (한림의대) 이태성 (계명의대)	김수녕 (건국의대) 김영태 (연세의대) 김현찬 (인제의대) 배덕수 (성균관의대) 배석년 (가톨릭의대) 심재욱 (성균관의대) 이승호 (영남의대)	김기태 (인제의대) 김홍곤 (원광의대) 문영진 (한양의대) 심재철 (동국의대) 이선경 (경희의대) 이준모 (가톨릭의대) 한세준 (조선의대)	김영태 (고려의대) 노홍태 (충남의대) 배동한 (순천향의대) 안응식 (가톨릭의대) 이두진 (영남의대) 박찬용 (가천의대) 이찬 (포천중문의대)	강재성 (고려의대) 김성한 (고신의대) 김종혁 (울산의대) 김희숙 (성균관의대) 박충학 (단국의대) 윤민수 (부산의대) 조삼현 (한양의대)

SCLC
Small cell lung cancer

HYCAMTIN®
Proven clinical EFFICACY-
the potential for symptom IMPROVEMENT

HYCAMTIN
(topotecan HCl) FOR INJECTION
A SECOND CHANCE FOR IMPROVEMENT

- **Single-agent efficacy similar to combination therapy¹**
Hycamtin achieved a response rate of 24.3% vs 18.3% for CAV
- **Well-defined side-effect profile**
- **Recommended starting dosage**
1.5mg/m² intravenously over 30 minutes for 5 days, 21-day course²

SB SmithKline Beecham
ONCOLOGY

자세한 문헌자료는 스미스클라인 비엘 제약(주) 02-344-0722로 연락하십시오.

¹ Journal of Clinical Oncology, Vol 17, No 2 (February), 1999, pp 658-667
² Symptom improvement was defined as improvement over 2 consecutive cycles from the baseline assessment.

IGCS 소식

2002 서울국제부인암학회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열려

2000년 9월 1일 오후 7시 Intercontinental Hotel 에서 2002년 서울국제부인암학회 학술대회의 조직위원회 (Local Organizing Committee) 1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장단 및 각 위원회 위원장님의 소개가 있었고 2002년 대회의 전체행사 일정과 개최장소인 ASEM Convention Center 의 전반적 소개가 있었습니다.

주요토의 사항으로는 Seoul 대회의 준비기금 조성방안으로 목적은 대회장님의 1000만원 지원에 이어 각 위원장님들도 200만원씩의 찬조금을 내는데 전부 동의하셨습니다. 또한 일반회원들은 학회 등록비를 대회 이전에 선납하여 대회준비에 많은 국내회원들이 동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Argentina, Buenos Aires에서 개최되는 제8차 국제부인암학회 학술대회에서는 2002년 서울대회에 외국회원의 참가 홍보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의 지원을 받아 서울대회의 팸플릿과 기념품을 제작하였으며 학술대회중 Korean Booth를 설치하여 이를 배포하기로 하였습니다.

제8차 IGCS 학회를 다녀와서

국 내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 다음 2002년 서울 학회 때문에 꽤 많은 30여명의 회원들께서 거의 30시간에 가까운 비행시간도 마다 않고 제8차 IGCS 학회 참석을 위하여 부에노스아이레스로 향하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다음 학회를 위한 준비와 홍보등 여러 가지 목적을 잘 수행하였으며 학회를 전후한 남미의 이곳저곳의 여행도 잊지 못할 많은 추억을 남기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학회의 주요 topic 이 자강경부암과 외음부암이었기 때문에 또 국제학회의 관계상 또한 남미에서 주최한 관계로 내용 면에서는 이렇다 할 새롭다거나 주목할 만한 것은 그리 많지 않았다. 학회기간중 필자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IGCS 회장인 Robert Young 의 강의, 아니 강연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울릴 것 같은 president's lecture 이었다. 1900년대 산업과 의학의 발전과정을 돌아보며 2000년대 미래의 산업과 의학을 예견하면서 한 가계 (family) 의 역사 - 즉 자신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그의 강연은 우리의 의학의 역사를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대가의 해인이 번득이면서 인간에게서 의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한 의학의 발전이 앞으로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일깨워 주었다고 생각한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비교가 되면서 여러 가지 부끄러움과 부러움이 교차되는 참으로 감명 깊은 강연이었다. 강연 마지막 부분에 그의 가족을 이야기하며 흘리는 노대가의 눈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그의 인간다움을 느끼게 하며 그의 열정이 가슴에 와 닿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학회 기간을 전후하여 방문한 곳들을 열거하면 브라질의 상파울로, 리오데자네이로, 이과수폭포를 거쳐 학회지인 아르헨티나의 브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하였으며 학회후 페루의 리마를 거쳐 잉카의 유적지로 너무나 유명한 쿠스코와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마추피추를 돌아보고 귀국하였다. 우리 나라의 지구 정반대 쪽에 위치하면서 워낙 큰 나라들인 관계로 비행시간 12번을 갈아타야 하는 긴 여정이었으며 버스, 기차, 배 등으로 아마 길에서 보낸 시간이 전체 여정의 반은 차지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같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여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회원과 가족들이 모두 무사히 건 강히 다녀 올 수 있었던 점이 매우 기쁘고 이러한 여행을 통한 회원들간의 화합은 우리 학



남 주 현
울산의대 서울중앙병원

회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모든 여행이 다 그렇듯이 어느 나라를 방문했을 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 있다. 그런 것은 물론 미리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갖고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브라질 하면 아마존, 축구, 삼바가 생각나고 아르헨티나 하면 역시 축구나 탱고를 떠올리게 하며 페루 하면 안데스와 잉카 문명일 것이다.

여 행중 그 나라 특유의 문화를 즐기는 것이 여행의 커다란 즐거움 중의 하나이므로 우리 일행도 삼바와 탱고 쇼를 즐길 기회가 있었다.

특히 탱고 쇼는 IGCS 학회 참석자들을 모두 초청하여 개최한 아르헨티나 나이트로 학회에 참석한 세계 각국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 주었으며 우리는 과연 2002년에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까하는 생각은 필자뿐 아니라 참석한 우리 나라 모든 회원들께도 잠시 고민하게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나라 특유의 음악과 춤은 그 나라의 역사와 국민의 정서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알리는 또 반대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흔히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국제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듯이, 들던 소문대로 탱고 쇼는 불만하였다. 우선 삼바는 잡혀 온 아프리카 노예들이 즐기던 음악과 춤을 발전시킨 것으로 아프리카 리듬이 기본을 이루고 있으며 탱고는 그들의 조국인 스페인 후리앵고의 리듬이 기본을 이루고 있다. 경쾌한 리듬과 화려한 춤 속에 어딘가 모르게 베어있는 애조 띤 멜로디는 아프리카 노예들과 원주민 인디오의 한과 고향을 떠나온 정복자 그들의 회한이 녹아 서로 섞이고 또 발전하여 그들 특유의 음악

과 춤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일년에 한번 TV를 통해서나 보던 삼바 축제의 몇 장면이나 또는 나이트클럽에서 어설픈 탱고 춤이나 보아 왔던 것이 전부인 필자에게 본 고장의 삼바나 탱고는 춤 그 이상의 것으로 가슴에 다가왔다.

학회를 마치고 일행은 일명 '공중의 도시'로 알려진 마추피추를 보기 위하여 페루의 수도 리마로 향하였다. 안데스와 잉카 문명은 웬지 모르게 어릴 적부터 꼭 보고 싶었던 곳이어서 필자는 내심 기대와 흥분으로 또 고소 적응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으로 비행기에 올랐다. 후지모리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불안한 정정으로 세계의 뉴스에 오르내려 혼란스러운 것 같았던 리마는 예상외로 평온하였다. 한참 학생 대모가 시끄러웠던 시절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상상했듯이, 거리의 풍경도 바로 그 시절 우리의 60-70년대와 같이 저저분함과 무질서로 험클어진 모습이었다.

다 음날 일행은 쿠스코로 날아갔는데 이곳은 고도 3400미터의 안데스 고원에 위치한 잉카 제국의 옛 수도이었던 곳이다. 일행들은 모두 고산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루종일 긴장하였으며 그 중 몇 분은 산소 부족으로 인한 심한 두통과 구토, 기슴답답함 등으로 고생하였으며 대부분 그렇지는 않더라도 어딘가 이상한 느낌으로 그 좋아하는 반주도 거른 채 모두 일찍 저녁 식사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고소에 적응이 된 다음날 아침 드디어 마추피추의 등정이 시작되었다. 버스와 기차를 번갈아 바꾸어 타며 도착한 마추피추는 산꼭대기에 시냇에서 본 그 모습대로 고즈넉히 거기에 있었다.

몇 안되는 스페인 군대에 의해 잉카 제국이 멸망한 후 400여년 동안 감추어져있다가 1920년경에 예일대 고고학 교수에 의하여 발견되기까지 거기에 그렇게 있었었을 것이다.

문자가 없었던 관계로 누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높은 곳에 살았는지 아직도 신비에 쌓여 있는 잉카인의 조그마한 마을은 그 자체로 전 세계로부터 일년에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을 어려운 여정과 신체적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이곳을 찾게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리 오래 전도 아닌 그 시대에 그만한 문명쯤은 결코 뛰어난 것도 아니고 화려한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전세계로부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일까?

8면으로 내용 계속

제8차 Interantional gynecologic cancer society 학회 참석후

I GCS가 2000년 10월 22일부터 26일 까지 5일간, 남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새로운 1000년을 맞이하는 첫 학회를 개최하였다. 이 학회는 2년 마다, 대륙 별로 개최 장소를 옮기며 개최되는, 부인암을 연구하는 전세계의 여러 분야의 과학자들 및 임상의 들이 모이는 국제학회이다.

필자는 처음으로 이 학회에 참석하고, 남미 방문도 처음이라는 점도 있었으나, 2002년 Seoul에서 IGCS학회가 열린다는 점에서 참석 전부터 기대가 컸다. 한국에서 많은 선생님들의 연구 발표, 좌장 등의 학회활동을 보면서 부인암 연구에서 격상된 본 부인종양 학회의 위상에 기쁨 뿌듯함을 느꼈다.

금년 학회의 program은 학회 시작 전에 precongress course가 10월 19일부터 22일 까지 있었고, 10월 22일 6시에 본 학회의 opening ceremony가 있었고, 23일부터 25일 까지 다소 바쁜 schedule의 본학회가 이어졌다. 5일간 진행된 학회기간 중 참가인원은 700명이 넘었고, 구연이나 포스터 발표는 약 300여 편 되었으며, 올해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의 상당수가 임상에 관한 연구들이었다.

필자가 들었던 강의 중 인상에 남는 강의는 Dr Robert C Young의 "IGCS's President's Lecture: Cancer care in women: will the practice of the 20th century be relevant in the 21st?" 와 Dr Williams J Hoskins의 "Gynecologic Oncology: The Future"이었다. 요약하면 computer, 분자생물학의 급속한 발달에 의한 부인암의 진단, 치료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원격진료 및 Robot에 의한 인공위성을 통한 원격진료 수술 등의 치료, internet에 의한 의료 수급의 조절화 (internet을 통해 수요와 공급이 조절됨)와 의사와 환자의 새로운 관계 등을 예를 들 수 있다. 최근 의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평균수명이 90세로의 노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죽는 사람은 드물다. 아픈사람은 급격히 증가하는 의료환경"이 조성된다. 호발하는 질병으로 노령층에 흔한 암은 인간에서 가장 흔하고 중요한 질환으로 자리 매김을 하게 되고, 치료 보다는 1차 및 2차 예방에 의료가 집중될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다. 더불어 암을 치료하는 의사들의 필요성은 늘고, 암을 치료하는 임상으로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변화로는 첫째, 노인환자들이 의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삶의 질에



송 용 상
서울의대

대한 관심의 증대에 따른 치료 방법의 다변화 및 보조적 치료방법의 개발, 둘째 호발 암의 빈도 변화등을 생각할 수 있다. Human genome project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면서 실험실에서 수행되던 분자생물학적 기법들의 임상에서의 활용이 활발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도 team개념의 치료, 즉 부인암 전공의 surgical oncologist, radiation therapist, medical oncologist, biologist들이 함께 환자를 치료하면서, 각 환자개개인에 맞는 차별화된 multidisciplinary approach가 필요할 것이다.

학 회에 보고된 연구는 수술은 최소화하여 합병증을 감소시키고 생존률의 변화는 없는 방향으로의 치료에 대한 것이 많았으며, 재발한 경우 적극적 치료로 완치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다. 급속히 발달하는 분자생물학적 연구 및 기술에 힘입어 분자수준에서의 staging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었으며, 끝으로 최근 빠른 internet의 보급으로 ~~로인상연구~~ multinational, multiinstitutional study의 제안들이 눈에 띄어, 연구의 세계화가 빠른 속도로 발전 하는 느낌을 받았다.

끝으로 기억에 남는 연구보고를 짚짚별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자궁경부암의 경우 영국에서 시행한 'radical gynecologic surgery에 대한 노령층 환자의 태도'에서, 노령환자들도 desire for optimal treatment, desire for cure, or change in body image에 대한 설문에서 젊은 층의 환자들과 차이가 없다는 점은 임상 의로서 느끼는 바가 컸다. 분자생물학적 기법의 임상도용은 자궁경부암의 epithelial cell marker인 cytokeratin 19의 RT-PCR에 의한 ngeative node에서의 임상적 의미에

대한 연구 시도가 눈에 띄었고, tyrosine kinase domain이 없어 세포성장을 촉진하는 down stream signal을 활성화할 수 없는 dominant negative receptor(DNR)인 truncated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에 의한 종양세포 성장억제에 대한 동물실험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독일의 Dr Hoekel이 pelvic wall 에 재발된 병변을 pelvic floor muscle의 제거에 의한 치료시도가 돋보였고, 대만 장군 병원이 surgical staging한 환자에서 예후가 안 좋았다는 보고도 있었다.

난 소암의 경우 neoadjuvant chemotherapy처럼 3 cycle 의 항암화학요법 후 debulking surgery를 한 환자군과, 기존의 방법처럼 처음부터 debulking surgery를 직접 받은 환자군간의 삶의 질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최근 환자의 삶의 질에 관한 임상가들의 태도의 변화의 단면을 엿볼수 있는 것 같았다. 분자 생물학적 진단법으로 복강내 세포를 이용한 telomerase assay가 복강내 세포진 검사에 보완적으로 사용하여 환자의 예후 판정 및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는 보고도 있었으나, 이와 유사한 수년간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전향적 추적 연구 조사에 의한 negative cytology with positive telomerase activity에 대한 의미의 분석이 없어 아직은 검정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외음부암은 향후 노령인구의 증가로 새로이 주목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질환중 하나로 생각되는 데, 림프절 절제를 겸한 근치적 외음부 절제술에 의한 합병증이 높아 최근에 개별화한 치료로 합병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Breast cancer, melanoma에서 주목 받기 시작한 sentinel node 개념에 의한 치료시도들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자궁경부암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으나 특히 외음부암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cribriform fascia 부위의 lymph node 가 sentinel node로 규명된 경우가 많았다는 여러 보고가 있었다.

이외에도 많은 좋은 연구과제들이 있었으나, 소개를 다 못하는 점이 아쉽다. 이번 학회는 좋은 연구들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 이외에도, 남미의 독특한 자연 및 문화 등을 경험할 수 있어서 영원히 기억에 남을 만한 즐거운 학회였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 교실

1946년 8월 22일 국립서울대학교 설치령에 의하여 1947년 경성대학 의학부와 경성의학전문학교가 통합되어 현 국립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되었고 현 서울대학교병원은 제1부속병원, 구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 병원이었던 현 수도육군병원(중앙청 동편)은 제2부속병원이 되었다.

1947년 5월 10일에 조선의학회의 조선산부인과학회 대표회장으로 당시 제2부속병원 원장이며 제2산부인과교실 주임교수인 윤치왕 박사가 취임하였다. 윤치왕 교수는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분으로서 재직 기간 동안에 일본 교토제국대학 산부인과교실에서 의학박사를 취득하였으며 부인과 수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구들을 상당수 손수 구입하여 환자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

본 교실의 역사는 서울대학교의 전신인 경성제국대학이 광복과 더불어 경성대학으로 개칭이 되면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경성제대 제3회 출신이신 김석환 박사가 초대 주임교수로 취임하면서 환자진료 및 학생지도에 힘을 쏟기 시작하였다.

였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조선산부인과학회는 현재의 명칭인 대한산부인과학회로 개칭되었으며 2, 3대 회장으로 제1산부인과교실 주임교수인 김석환 박사가 취임하였다.

그러나 본 교실도 한국전쟁을 맞아 시련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제 1, 2 산부인과의 교실원은 그 대부분이 군에 입대 또는 피난, 행방불명 등으로 사방으로 흩어지고 말았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교실도 가장 힘든 시기를 맞게 되었다. 9.28 수복 직후 대학병원은 제1부속병원에 통합하게 되어 제1병원 구산부인과 자리에 장비와 집들을 옮기고 1950년 10월부터 진료를 개시하였으나 다시 전황이 불리해지자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제주, 부산 등지에서도 피난 진료생활을 벌이기도 하였다.

1957년에 이르러 인턴, 레지던트 제도가 도입될 것을 예견하고 의국원 중 전문의 자격을 얻는데 필요한 5개년 수련이 끝난 사람은 퇴국하도록 하였는데 여기 제일 처음 해당하신 분이 최낙력, 박창옥 선생님이었

으며 이것이 레지던트 제도가 생기기 2년 전으로 우리 나라 최초의 예였다. 이 해에 김석환 교수의 아이디어로 부인과 병리검사실(Pathology lab.)이 산부인과 내에 설치되었으며 이곳에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Pap smear가 도입되어 처음으로 부인암 조기검진사업이 출발하게 되었다. 그 다음 해인 1958년 봄부터 정식으로 인턴, 레지던트 제도가 생겨 1959년 3월 제1회 인턴이 수료하였다.

1962년 김석환 교수가 사임하고 명예교수로 취임함에 따라 신한수 교수가 주임교수겸 산부인과 과장으로 취임하였다. 신한수 교수는 미국에서 6년간 유학을 마치고 1955년에 귀국하신 분으로서 주임교수 시절 외래에 특수클리닉으로 가족계획상담실, 산전관리실, 불임상담실, 종양클리닉, 자궁암 조기진단실, 산부인과 병리실 등을 속속 설치하여 진료와 교육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교실 연보(Annual Report)를 처음으로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1966년에 장윤석 당시 조교수가 도미, Worcester Foundation에서 생식생리학 1년 training course를 마치고 Worcester State Hospital의 세포유전학 연구실에서 1년간 더 근무한 후 Harvard 대학 등의 산부인과에서 단기연수를 하였다. 이때의 노력이 재산이 되어 후일 장윤석 교수는 국내 최초의 시험관 아기를 탄생시키는 등 불임, 내분비학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쌓게 되었다.

1970년에는 교실에 슬픈 일이 일어났다. 주임교수이던 신한수 교수가 10월 동경에서 있었던 국제가족계획회의에 참석하였다가 갑자기 발병하여 귀국, 본 대학병원 내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심근경색증으로 돌아가시는 일이 생겼다. 독일에서 수년간 유학을 하고 돌아온 나건영 교수가 신한수 교수의 뒤를 이어 주임교수와 산부인과 과장에 취임하게 되었다.

시련과 우여곡절, 그리고 영광을 겪으면서 반세기를 넘게 달려온 본 교실은 1979년 현 서울대학교병원 건물인 신축병원으로 이주를 하게되었고 현재 의국과 교수실은 11층 6파트에 그리고 산부인과 병동은 3층과 4층에 위치하게 되었다. 그 후 병동은 다시 3층 1, 2, 4, 5 파트를 다 사용하게 되었고 3층 6파트는 분만장으로 사용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분만장은 산부인과민의 고유한 시설로서 복강경 시술, 골반경 수술, 자연분만, 제왕절개분만, 산과 및 부인과 초음파, 3차원 초음파 및 간초

사실 등을 완전히 다 갖추고 있는 센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1975년에는 김승욱 교수가 주임교수 및 과장에 취임하였는데 김 교수는 난관불임술, 수태조절전문가회의 등에 수차례 참석하는 등 가족계획사업에 관련된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였다.

1980년 신면우 교수가 주임교수 및 과장에 취임하여 자궁경부암에서의 근치적 자궁절제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환자에게 시술하였다. 신 교수는 대동맥 주위 림프질의 제거 및 자궁방조직 제거를 철저히 하는 분으로 유명하였다.

1982년 장윤석 교수가 신면우 교수의 후임으로 주임교수 및 과장에 취임하였다. 또한 장윤석 교수는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에 선출되었고 대한불임학회장에 선임되는 등 학술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였다.

1990년 7월 이진용 교수가 주임교수 및 산부인과 과장에 취임하였고 1991년 4월에 폐경학회 창립 기념식에서 초대회장으로 이진용 교수가 추대되었다. 이 해 5월에는 장윤석 산부인과 내시경학회 회장의 주도로 국제산부인과 내시경 학회를 서울 신라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30여명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초대되어 수준 높은 강연과 진지한 토론을 함으로써 국제적인 위상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6년 7월 이효표 교수가 주임교수 및 과장에 취임하였다. 이효표 교수는 대한부인종양포괄학회의 회장에 선출되어 부인종양학의 발전에 노력하였으며 학회 주관으로 부인종양학 교과서를 출간하였고 국제자궁경부병리·폴포스코피 연맹의 집행이사로 선출되었다. 한편 대한산부인과학회 부인종양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전국적 부인암 등록 사업을 실시하여 새로운 암등록 사업으로서의 이정표를 개척하였으며 현재까지 매년 실시하여 학회지에 게재하고 있다. 또한 교실 주관으로 산부인과학 교과서를 출판하여 우리 나라 의과대학생들과 전공의들에게 간결한 우리말 교과서를 제공하였다. 윤보현 교수는 미국에서 개최된 세계 주산의학 학술대회에서 자궁내 감염에 관한 초청강연을 하였으며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2000년 7월 신희철 교수가 주임교수 및 과장에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산과 영역에서는 조산과 분만기전에 대한 테마를 장기적으로 집중 연구하고 있으며 부인종양분과의 최근 연구는 HPV의 자궁경부암 발병기전에서 분자생물학적 기전 규명에 관한 연구, 자궁경부암 환자의 발병위험도를 유전학적 차원에서 SNP를 이용하여 데이터 베이스화하려는 노력 등을 기울이고 있다.

2000년 학술상(BMS상) 선정

수상자: 유 희석 교수(아주의대)
 논문제목: 지궁경부암에서 TRAIL 수용체의 발현

본 선정은 학술위원들의 추천에 의하여 선정되었으며, 시상은 2000년 12월8일
 추계 심포지엄에서 시상될 예정입니다.

2000년 춘계 학술대회 결과보고

1) 연제 및 연자

A) Cell Biology in Gynecologic Cancer

- 1) Signal Transduction 한양의대 생화학교실 한 중 수 교수
- 2) Tumor Suppressor and DNA Repair Gene Defects 서울의대 산부인과 송 용 상 교수
- 3) Growth Factors 동국의대 산부인과 심 재 철 교수

B) Gene Therapy in Gynecologic Cancer

- 1) Tumor Suppressor mediated Gene Therapy 생명공학연구소 임 동 수 박사
- 2) Immunomodulatory Gene Therapy 기톨릭의대 산부인과 김 태 응 교수
- 3) Gene Therapy in Ovarian Cancer 성균관대의대 산부인과 이 재 호 교수
- 4) Cytolytic Virus Gene Therapy 고려의대 산부인과 김 영 태 교수

2) 지명토론회도 도입

- 김영탁 교수(서울중앙병원) · 조영래 교수(경북의대)
- 김병기 박사(원자력병원) · 안웅식 교수(가톨릭의대)
- 김동규 교수(연세의대) · 유희석 교수(아주의대)
- 김승철 교수(이화대의대) 이상

학회는 2000년 6월2일 오후 1시부터 거행되었으며 약 2000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새로이 지명토론자 제도를 도입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전개하여 토론의 열기를 더하였다. 회원님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참여하여 주신 연자, 지명 토론자 및 전 회원님들의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학회 홈페이지 개설안내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이 학회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소 : <http://www.ksgoc.or.kr>
 접속방법 : ID(이름인력)
 Password(학회 회원 입회시 기재한 개인 전화번호)

회원이신 분만 접속이 가능하며 신규회원 등록을 하시려면 학회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문의는 학회 사무실 혹은 홈페이지 E-mail로 문의 바랍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회원원고모집

1년에 4회(3, 6, 9, 12월)에 걸쳐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를 발간하고 있는바, 원고를 항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아래 절차로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원고의 종류 : 원저, 증례

-원고 접수시 :

논문 원본 1부 및 사본 2부(도합 3부)와 diskette(아래아한글 2.5이상)제출요망

-보내실곳 :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133-792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교 산부인과학교실
 TEL. 2299-9237
 FAX. 2296-8472

-원활한 업무연락을 위하여 투고하시는 원고의 표지에 원고에 관한 책임저자(교정자)의 1)주소, 2)성명 3)전화번호 4)FAX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산부인과 전문의 시험시에 소아과 및 산부인과학에 제출하는 논문으로서의 자격이 있으므로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연회비 납부안내

회원님의 연회비 납부로 학회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의 계좌번호로 연회비 15,000원을 송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금시 회원님의 이름으로 하여 주시고 입금 후 학회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계좌번호

806-24-0409-367 국민은행

예금주 : 문영진

4면 내용에 이어

필자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더 신비로운 수수께끼이었다.

우리에게도 낮이고 귀익은 그 곳 돌담길을 걸으면서 어쩌면 우리의 조상과 그 얼굴 생김과 모습이 너무나 흡사한 인디언들이 그 좁은 골목길과 집들을 드나들며 생활하였을 그 시절 그 모습을 그리어 보며 가는 곳마다 마주치었던 지금 현실의 인디언 후손들의 모습이 교차되어 지나갔다.

현대 문명을 완전히 거부하며 지금도 안데스산맥 깊은 곳에 숨어있는 이들과 또 조금은 현실에 노출되어 여행객들을 상대로 조잡한 물건들을 만들어 팔지만 아직도 그들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과연 그곳을 찾는 매우 현대화되고 제법은 각자의 나라에서 잘 살고 있는 여행객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돌아오는 버스차녀머로 마침 일요일이어서 산 너머 수십리길을 걸어 모였을- 우리의 옛 장터 같은 곳에서 발리는 그들의 축제를 보면서 늦은 시간임에도 결코 지치지 않은 밝은 그들의 얼굴에서 어두움 속에서도 따뜻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필자의 지나친 감상이었을까?

사람들은 그 높은 산 속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자연 그대로 그 시절에도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는 그들의 생활을 보고 느끼면서 그것을 그렇게 어렵게 찾아온 마추피추에 대한 보람으로 갖고 가는 것은 아닐까 하고 나름대로 생각해 본다. 고소에서의 하루는 매우 쉽게 피곤해진다. 늦은 저녁과 이제 조금은 고소에 적응되었다는 치기로 마신 몇 잔의 술로 하루를 마감하고 이제 또 다시 정말로 긴 귀환의 길로 모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사실 나는 지금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 글을 쓰고 있으며 아직도 갈 길을 생각하면 끔찍하기까지 하다. 사실 그 동안 이런 종류의 글을 읽으면서 나도 다음에는 꼭 한번 써 보아야지 하면서도 돌아와 일상의 바쁨 속에 묻히다보면 잃어버리곤 했던 과오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코자 이번에는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써 보리라 마음먹고 또 그러다 보면 지루함도 덜 하겠지 하는 생각에서 시작하였다. 이제 이것으로 여행을 마감하면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머리가 조금은 무겁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많이 도와주신 여러 회원들께서 2002년 서울 학회를 위하여 모두 같이 힘써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나라를 우리 학회의 저력을 세계 학회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면서 그런 새로운 각오로 이 글을 마치면서 모든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회원동정

▲박 상윤 회원

2000년 10월18일 원자력병원 산부인과 과장에서 국립암센터의 자궁암센터장 및 교육훈련 부장으로 이전.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 1동 809번지 (411-351)

전화 : 031-920-1954

FAX : 031-920-1951



최근 들어 제2의 IMF 위기가설이 돌고 있을 정도로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년동안 회원들과 임원진들의 소식 그리고 외국의 최신 의학지식을 알리기 위해 창간한 소식지가 어느덧 3회를 맞았고 이와 더불어 문형화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의 임기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소식지를 발간한 후에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부족한 점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소식지에 대한 회원들의 좋은 반응과 따듯한 지지도 받았고 다음 번 소식지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만들겠다는 다짐도 이전 차기 집행진에게 넘겨려고 합니다. 그동안 미흡하나마 발간된 소식지에 많은 애정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축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편집인 이규원

**The Art of
VERSATILITY**

- Proven Activity & Safety
- Flexible Dosing and Scheduling
- Validated Continually Within Cooperative Group Trials*

SEMISYNTHETIC
TAXOL®
(paclitaxel) Injection
Clearly Versatile

In general, TAXOL is well tolerated. The most common adverse events associated with TAXOL are neutropenia, peripheral neuropathy, arthralgia/myalgia, and alopecia.

* As of 1999.
† TAXOL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Bristol-Myers Squibb Company.
TXL-02AD-0899

Scales Art Resource, NY.
Michelangelo, Buonarroti.
Creation of Adam; detail of the hands of God and Adam.
Sistine Chapel, Vatican Palace, Vatican State.

**BRISTOL-MYERS SQUIBB
ONCOLOGY**

(주)한국BMS제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52번지
Tel: 02-3484-1300
FAX: 02-3484-1301
http://www.bmsipg.co.kr

©1999 Bristol-Myers Squibb Company
Princeton, New Jersey 08543 U.S.A.
44-0021 6/99